

광주시 ‘전기차 선도 도시’ 뒤통

전기차 구입 ‘0’...충전기 설치도 전무

지원국비 12억원 집행 못하고 이월

‘전기차 선도 도시’로 선정된 광주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전기 자동차를 단 한 대도 구입하지 않고, 충전기 설치 실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차 구매를 위해 지원된 국비 12억원도 전액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되는 등 전기차 선도도시 사업이 골통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임동호(교육·남구) 의원은 24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지난해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된 후 국비 등 23억원을 들여 전기

차 42대 충전기 43대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된 광주시는 오는 2014년까지 자동차 300대, 충전기 320기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선도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구입액 6억2300여 만원, 충전기 설치금 5억9700여 만원 등 총 12억2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42대, 올해 40대를 구입할 예정이었다.

구입 차량은 공무원 관내 출장이나 순찰용·업무용·시승체험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정 업체부터 전기 자동차 확보를 한대도 하지 못하는 등 전기차 사업이 뒤통거리고 있다.

시가 전기차를 구입하려던 지역 내 전기차 업체가 경영난으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면서 전기차 구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전기차 구입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비 지원금 집행실적도 ‘0’에 그쳐 전액 해를 남겨 이월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민간분야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지난해 미 구입분과 올해까지 합해 최소 차량 80대 이상을

구입해야 하는데 활용계획도 사실상 없다”며 “지역업체 차량을 구입할 계획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상장폐지까지 된 업체를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프랑스 파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인 소형 전기자동차 대여 시스템인 ‘오토리브’ 등을 벤치마킹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는 전기차 생산업체가 신규 투자유치 및 기업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생산이 이뤄지면 차질없이 확보할 계획이며, 국비지원 사업비 이월도 환경부와 충분히 공감한 만큼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27일부터 오피스텔 매입임대 등록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임대주택 중목 입주 확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지만 바다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한 요건을 제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24일 회의에 재상정됐다. 문제가 됐던 바

다난방시설 요건은 이날 회의에서 삭제됐다. 이에 바다난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 생활방식이 보편화됐고 바다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작년 기준으로 오피스텔 재고 33만2000실 가운데 바다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은 41%(13만7000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국세청 사치성 업소 30곳 세무조사

국세청은 탈세 위험이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사업자 10명에 대해 24일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간 수천만원짜리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온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숍, 회당 20만~30만원의 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 팔아온 고급미용실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작년에만 고소득 자영업자 569명을 조사해 3632억원을 징수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063.42 (-9.21)
▼ 코스닥지수	487.62 (-7.40)
금리 (국고채 3년)	3.47% (0.00)
▲ 원·달러 환율	1,140.80원 (+1.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창업 66주년 맞은 남화토건

무차입 내실경영으로 꾸준한 성장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 남화토건(주)이 창업 66주년을 맞았다.

남화토건은 건설한 경영으로 지역 건설사 중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진출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 증가했다. 매출액은 851억원, 당기순이익은 47억원으로 각각 71%, 198% 늘었다.

이 같은 성장에는 모범적인 ‘형제경영’이 자리하고 있다.

남화토건은 1946년 형인 최상욱 회장이 20세의 나이로 ‘남화토건사’를 창업, 첫발을 디뎠다. 최 회장은 건설에서 출발해 서석중·고교, 한국케이비TV광주방송, 무안 컨트리클럽 설립 등 교육·문화·레저 사업으로 외연을 넓혔다.

이후 지난 1993년 동생인 최상준 부회장에 남화토건의 경영권을 넘겨줬다. 바통을 이어받은 최 부회장은 건설전문경영인으로 남화토건을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업지를 다졌다.

지난 1월 코스닥 상장 공모주 청약에서 1269대 1이라는 경이적인



최상욱 회장



최상준 부회장

지역 건설사중 처음

코스닥 상장해 대박

올매출 1000억 돌파

경쟁률을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렸다. 청약증거금으로 1조1425억원이 몰렸다. 남화토건의 주가는 24일 현재 4830원으로, 공모가(3000원) 대비 61% 상승했다.

남화토건의 청약 대박은 내실 경영에 따른 재무안정성과 투명·윤리 경영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엔 46억4500만원 규모의 조산간호대 제2교사 신축공사를 따냈다.

남화토건은 ‘무차입 경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 등 부채가 전혀 없다. 현재 신용등급은 AAA등급으로 전국 20위다.

내실 경영과 성장세 덕분에 증권가에서는 남화토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올해 매출이 1000억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NH농협증권은 “올해 매출 10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 내외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지난 연말 기준 380억원의 순현금을 보유한데다 무안CC 퍼블릭 골프장을 소유한 남화산업, 슬래그시멘트 제조사인 한국시멘트 등을 자회사로 보유해 자산 가치도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형제는 장학사업 등 사회 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상준 부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가는 길”이라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미분양 주택 3개월 연속 감소

3월 6만2949가구...전월비 1910가구 줄어

중소형 미분양은 늘어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토해양부는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2949가구로 집계돼 전월(6만4850가구)보다 1910가구 줄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월 이후로 세 달 연속 감소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만6961가구가 미분양돼 전월(2만7603가구)보다 642가구가 줄었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1040가구)와 인천(-123가구)에서 미분양이 크게 줄었다.

지방의 경우 3만5988가구가 미분양돼 전월(3만7247가구)보다 1259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광주 등에서 신규 미분양 물량(1181가구)이 쏟아졌지만 업계의 분

양가 할인과 구입 심리 확대가 기존 미분양 물량을 소진시켰다.

규모별로는 중대형 미분양 물량은 줄었지만 중소형 미분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3만5574가구(수도권 1만7441가구, 지방 1만8133가구)가 미분양됐다. 전월(3만8532가구)보다 2958가구(수도권 -1672가구, 지방 -1286가구) 줄어든 수치다. 85㎡이하 중소형 규모는 2만7375가구(수도권 9520가구, 지방 1만7855가구)가 미분양됐다. 전월(2만6318가구)보다 1057가구(수도권 1030가구, 지방 27가구)가 증가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3만438가구(수도권 1만753가구, 지방 1만9685가구)로 조사돼 전월(3만1452가구)보다 1014가구 감소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구매담당 초청

전남도 공공구매 상담회

전남도가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해 25일 전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초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상담회’를 연다.

이번 상담회는 도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청, 조달청, 전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22개 시군 등 지역 내 35개 공공기관과 51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또 납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공사용 자재 중심으로 상담기업을 선정했고,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과 쉽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담 희망 공공기관을 미리 신청받아 상담회를 진행한다.

전남도 박내영 경제산업국장은 “공공기관이 지역제품을 적극 구매하면,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동원도시개발

수완지구 흑석
EGthe1A앞

2500세대

중심상권 부동산

금호, 수완, 상무지구

임대완료된(2억원대)
핵심상가, 부동산 다수
분 | 양 | 중

푸르지오부동산 362-5400



ISO 9001 / 14001 인증
고객센터
케이폴 1600-8501
www.kpol.co.kr

우리나라 무인경비는 케이폴입니다

무인경비 독립선언

우리나라에서 무인경비 서비스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유독 무인경비시장만큼은 외국계 회사와 브랜드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오랜 세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경비회사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우지 자본,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 무인경비시장을 지켜온 우리 기업들이 이제 케이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무인경비 케이폴

우리 브랜드, 우리 자본, 우리 기술로 당당히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케이폴이 지킵니다.



·KBS 2TV 및 MBC TV에서 방영중입니다.

무인경비 | CCTV | 근태관리 | 출입관리 | 시설관리
HRO아웃소싱 | APT통합경비 | 시설경비